

“두만강 두 번 건널 땀 지옥...두살배기 아들 얻고 새 삶”



제1부-희망 찾기 건달서 공무원 된 마진우씨

북한 건달 청년이 남한 공무원이 됐다. 인생역전의 주인공인 북한이탈주민 마진우(36)씨다.

진우씨는 1981년 4월 3일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났다. 거운성은 한반도 최북단, 중국·러시아와 맞닿은 곳이다. 그는 토대(출신성분)가 좋아 어려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기 때문이었다.

탄탄대로였던 그의 삶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시밭길이 됐다. 11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다음해에 어머니도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따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생활하던 진우씨는 갑자기 고아가 됐다.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드세게 살았다. 배가 고파 빌어먹고, 뺏어도 먹고, 도둑질해서도 먹었다. 싸움도 많이 했다. 그러다보니 보안서(경찰서)를 제집 드나들 듯했다.

하지만 그는 학교는 다녔다. 의무교육인 탓도 있었지만 집안의 토대가 좋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다. 학교를 졸업해야 공민증이 나오고, 그래야 군대를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시 꼬였다. 고아로 어렵사리 학교를 마쳤지만 군대에는 가지 못했다. 과체중으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군 입대를 못한 진우씨는 일을 해야만 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에 따라 그는 정주시장과 담판을 지어 정주시청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가 맡은 일은 시장에 돌아다니며 일하지 않는 청년을 잡아다가 일을 소개시켜주는 것이었다. 시청에서 2년간 일했지만 월급은 한푼 없었다. 끼니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당시

건달·소매치기 전전하다 강 건너...복숭 뒤 출소
두번째 탈북 후 6개월간 죽을 고비 넘기며 남한행
국세청 공무원 합격...가정 이루고 대학 진학도
다문화상담사·굴삭기 면허 취득...자기계발 매진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다.

진우씨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청을 그만뒀다. 동네 건달이 됐다. 소매치기는 그의 주 수입원이었다. 소매치기를 하며 시장을 배회하던 그는 세상이 싫어졌다. 그 때 보안서에서 ‘일하지 않으면 잡아간다’는 통보가 왔다. 그는 도망쳤다. 사람이 없는 고향 산속으로 숨었다. 1년여를 사냥꾼·심마니로 살았다. 하루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사람이 없었다. 이러다가는 병어리가 되겠다 싶었다. 그리고 하산했다. 그 때가 2003년 봄이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두만강을 헤엄쳐 건넜다. 첫번째 탈북이었다.

중국에서 숨어지내다가 조선족을 만나고 일도 하며 적응해갈 즈음 공안에 붙잡혀 북으로 송환됐다. 보위부에 끌려간 그는 고초를 겪었다. ‘배신자’라는 오명을 쓴 채 ‘단련대’(삼정교육대와 비슷)에 보내졌다. 막노동·벌목 등을 하며 단련대에서 고생하다가 6개월만에 출소했다.

그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굶어 죽나, 맞아 죽나, 매 한가지였던 때문이다. 두번째 탈북이었지만 남한행은 생각지도 않았다. 남한엔 거지들만 사는 줄 알았던 탓이다.

그는 중국에서 천진·상해·북경·연길·장춘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했다. 그러다 한 남한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 사람은 “남한에 가라”고 했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 때서야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한국으로 가자고. 2007년 겨울 훈춘을 떠나 심양·곤명을 거쳐 버마·라오스·태국을 돌아 2008년 4월4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탈북민이면 누구나 그렇듯 목숨 건 탈북이었다.

“훈춘을 출발할 때 칼과 독약을 챙겼어요. 공안에 붙들리자면 찌르고 달아나

기 위해서였죠. 독약은 진짜 잡혔을 때 사실 목적이었어요.”

그는 태국에서도 큰일날 뻔했다고 회상했다. 태국에 도착한 일행을 운전기사가 대사관으로 데려다줬단다. 대사관 직원이 밤중이라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단다. 느낌이 이상했다. 새벽에 도망쳤다. 알고보니 운전기사가 한국대사관이 아닌 북한대사관에 데려다준 것이었다.

꿈에 부풀어 한국에 찾아왔지만 한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국경원·하나원을 거쳐 목포에 집을 배정받았다. 대불산단의 한 중소기업체에서 1년6개월가량 근무하던 그에게 목포시가 “국세청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며 추천해줬다. 그땐 국세청이 뭘한 곳인지도 몰랐다. 남한사람에게도 선망의 직장이라고 해서 응시했고 합격했다. 문제는 그 때부터였다. 호치케스·A4·카트리지·프린트용지... 하는 말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행히 함께 일하는 선배들이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르쳐줘 가까스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행정보조 업무를 넘어 이제는 청사 관리를 맡고 있다.

진우씨는 직장이 안정되면서 대학 진학의 꿈도 실현했다. 그리고 가정도 일갔다. 2살 된 아들도 얻었다.

그는 목포에 정착한 탈북민 6명과 함께 모임을 꾸렸다. ‘한소리’라고 ‘한마음으로 말하자’는 의미다. 모임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후배 탈북민들에게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의 스펙은 그 어느 남한사람보다 화려하다. 사회복지사 2급, 다문화가정 상담사 2급, 굴삭기·지게차 면허, 대형운전면허 등. 진우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컴퓨터와 씨름 중이다. /강진=박정욱·전은재 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에서 근무하는 마진우씨는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라고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말이다. 인터뷰를 마친 진우씨가 사무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강진=나명주기자 mjna@

“참아라·노력하라·배워라”

마진우씨의 남한 정착 3계명

마진우씨의 성공 정착 3계명은 ‘참아라’, ‘노력하라’, ‘배워라’다.

진우씨는 후배 탈북민들에게 “참고 또 참아라”고 조언했다. 북한식 대로 살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에서처럼 ‘성질대로 하면 싸움이 되고, 싸우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경원 직원의 말을 전했다. “국경원에서 조사받을 때 국경원 직원이 절대 싸우지 말라고 했다. 북한식 대

로 살면 다시 국경원으로 오게 된다”고. 진우씨는 또 “(직장을) 자주 옮기지 말고 진득하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다. 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속 깊게 인간 관계를 쌓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워야 한다”고도 했다. 처음에 잘 적응하려면 지리를 잘 아는 게 필요하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지리를 알아야 나돌아다닐 수 있고, 그래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움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했다. 그

는 “배울 길은 열려있는데 방법을 몰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럴 때면 담당(사회복지관·형사)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그도 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다녔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남한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도 같은 조선사람이기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된다’면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두부밥·북한만두...남·북 설음식 나눔 한마당



인조고기밥



북한 과자

NK비전센터, 탈북민 초청

“두부밥·인조고기밥·북한만두 먹으니 고향 생각납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벨엘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광주 시민 150여명이 남과 북의 설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NK비전센터가 주관하고 광주벨엘교회·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가 주최한 ‘남·북 설음식 나눔 한마당’은 올해로 세번째다.

올해는 탈북민 봉사단체인 ‘한마음봉사단’에서 두부밥·인조고기밥·북한만두·북한과자 등 북한의 설음식을 장만했다. 이날 선보인 두부밥은 북한의 고급 음식으로, 두부를 기름에 튀겨 양념간장을 바른 것이다. 유부초밥에 양념장을 바른 느낌이다. 인조고기밥은 고기가 귀한 북한에서

명절에 고기 대신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음식이다. 남한 음식으로는 떡국과 잡채, 갈비찜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민 진화정씨의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탈북민들이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 북한 노래 함께 부르며 춤을 췄다.

박우철 NK비전센터 대표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 왔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음식을 그리워한다”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설음식을 함께 나누며 통일의 길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나순옥(여·62)씨는 “남한 명절 음식 중에는 집체가 제일 입에 맞는다”며 “외롭고 쓸쓸한 우리를 초대해 설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주고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NK비전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벨엘교회에서 광주지역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을 초청해 ‘제3회 남·북 설음식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